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안 안토니오

다블뤼 안토니오
(1817-1866)



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인 안 안토니오 주교의 우리말 이름은 안돈이(安敦伊)다. 그는 한한불(韓漢佛) 사전을 비롯하여 많은 번역서와 저서를 남겼고, 10여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조선 순교자 비망기」를 완성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라나 동양 풍속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데다 위장병과 신경통에 시달렸지만, 조선말에 능숙하고 토속 음식도 즐긴 까닭에 가장 한국적인 사제로 알려져 있다.

1845년 10월 조선에 들어와 20여 년 동안 양 떼를 돌본 안 안토니오 주교는 1866년 3월 11일, 홍주 거더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민 루카 신부, 황석두와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 이때 유창한 한국말로 천주교에 대한 공격을 반박하였고, 그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같은 해 3월 30일, 안 주교 일행을 충청도 갈매곶으로 압송한 형리들은 마을에 소리돌리며 형 집행을 지연하려 하였지만, 마침 그날이 주님 수난 성금요일이어서 안 주교는 사형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였다.

성화_보디아나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32주일 · 평신도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1열왕 17,10-16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히브 9,24-28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르 12,38-44 <또는 12,41-44>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기원후 70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 재건도

오늘 제2독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참성소의 모조품”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히브 9,24)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참성소는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는 지상의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습대로 지어졌음을 암시해 줍니다. 참고로, 하늘 성전의 ‘존재’는 이사 40,22과 묵시 11,19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한처음의 혼돈을 제압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안식을 취하는 곳이 신전이라 여겼습니다. 창세기 1도 천지창조 뒤 하느님의 안식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2,3). 그런데 이 안식은 피로회복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방증입니다. 곧 삼라만상의 질서가 자리 잡혔기에 하느님께서 더 일하실 필요없이 평화롭게 쉬실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보장하며 안식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점은 시편 132,8에 나옵니다: “주님, 일어나시어 당신의 안식처로 드소서. 당신께서, 당신 권능의 궤와 함께 드소서.” 여기서 “권능의 궤” 곧 계약 궤를 모셔 두던 곳은 성전이였으므로, 주님의 ‘안식처’란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고대 근동인들은 성전 또는 신전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창조 질서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하느님께서 안식을 멈추신다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쳤을 때 백성들이 바친

기도가 시편 44,24에 나옵니다: “깨어나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잠을 깨소서, 저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이사 51,9에도 비슷한 호소가 나옵니다: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힘을 입으소서, 주님의 팔이시여. 옛날처럼, 오래 전 그 시절처럼...” 이 두 구절 다 세상의 평화가 깨졌으니 주님께서 안식을 멈추시고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를 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인들은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고 또 보장받는 의미로 하늘 성전의 모형을 지상에 지었습니다. 히브 8,5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휘 아래 봉헌한 광야 성막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형대로’ 지었다는 점(탈출 25,8-9)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인 기록에 들어 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 사항을 분명히 알려 주셨다”(1역대 28,19). 말하자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에는 주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므로(1코린 3,16),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섭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다고 하겠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7장 새로워진 만남의 경로 ③ - 용서(容恕)의 가치와 의미

회칙 「모든 형제들」은 “평온한 사회적 공존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 자세를 제안한(226-235항) 다음, “용서의 가치와 의미”(236-245항)를 성찰합니다. 먼저, 이른바 ‘갈등이론’을 전제하는, 용서와 화해에 관한 잘못된 믿음의 산물인 ‘겉치레 평화’뿐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의 몰이해가 운명론, 무관심, 불의 또는 무관용과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합니다(236-237항).

하지만 회칙은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신 스승 예수님을 따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부패와 탈선으로 점철된 이교도 세상”에서 “변함없는 인내와 관용과 사려”로 참된 용서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태 10,34-36)라는 말씀이 “갈등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갈등을 감내하라는 초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겉치레 평화를 내세우면서 보이는 존중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실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 갈등을 견뎌야 한다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에서 여러 사회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의 경우, 누구나 “정직하고 단호하게”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238-240항).

이어서, 회칙은 이러한 어려움에 있어 몇 가지 성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241-245항). 첫째, 사랑의 의무와 관련하여

“부패한 관료, 범죄자,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은 그들의 불의와 압제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패와 범죄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그 힘을 내려놓게 합니다.” 둘째, 용서 역시 압제와 범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존엄과 권리들,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치열하게” 수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엄의 훼손과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회복과 “재발 방지 보장”이라는 정의의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용서는 정의를 막아서지 않으며 오히려 요구합니다. 셋째, 내적 평화와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 소극적으로는 ‘분노에 연료를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복수와 파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갈등으로 남겨진 불의와 적의와 불신이라는 쓰라린 유산(遺産)”을 선을 통해 화해와 연대와 평화를 키우는 덕목을 함양함으로써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은 힘의 사용이 아니라, 인격적 대화와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참을성 있는 사회적 협상을 통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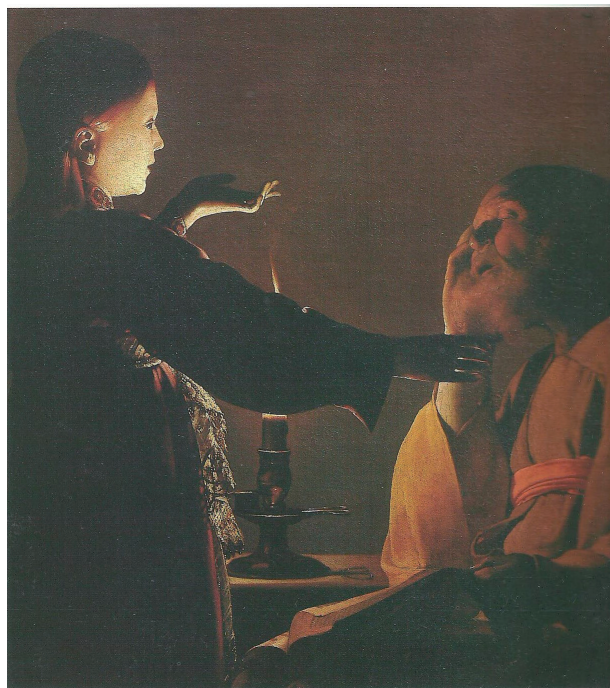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숨겨져 있거나 과거에 파묻혀 있을 때, 침묵은 중대한 악행과 죄의 공모(共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44항). ●

성 요셉의 꿈

어두운 실내 중앙에 불 켜진 촛대와 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괴고 깊은 잠이 든 나이 지긋한 남자와 그 맞은편으로 엷된 소녀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일까요? 이는 잠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주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꿈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은 총 세 번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 몸엔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마태 1,20). 두 번째는 헤로데가 남자 아기들을 무참히 학살하니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헤로데가 죽고 평화가 오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속 장면이 세 사건 중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깊은 잠이 든 덩수룩한 턱수염의 요셉은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짐, 번뇌의 무게를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감당해야 할 무게도 힘겨운데, 요셉은 귀하신 성모자(聖母子)를 보살필 임무까지 맡았으니 그 일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한편, 그와는 대조적으로 생기 있는 젊음에 매력 넘치는 엷된 모습의 천사가 있습니다. 어둠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붉은 톤의 고운 드레스에 화려하고 정교한 레이스로 된 카라 장식과 벨트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운 소녀는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일 수밖에 없겠지요. 지상의 존재인 요셉과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 사이에 초가 켜져 있는데, 천사의 넓은 소매에 가려져 초의 상단과 하단이 조금 보일 뿐입니다.



조지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4~1652), 〈성 요셉 앞에 나타난 천사〉, 1640년경, 캔버스에 유채, 93cm×81cm, 낭트 미술관 (프랑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17세기 프랑스 바로크 미술의 거장 조지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4~1652)입니다. 밝음과 어둠의 대비로 빛을 더욱 강렬하고 신비롭게 표현하는 것이 ‘명암법’의 특징이지요. 지난 번 소개한 작품 〈목수 성 요셉〉에 나오는 소년 예수와 닮은 천사는 활기 넘치는 풋풋한 모습입니다. 오른손으로는 깊이 잠든 요셉이 옆으로 쓰러질까 조심스레 손목을 잡아주고, 왼손으로는 마치 요셉의 영혼을 들어 올리듯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손동작이 우아합니다.

성스러운 고요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은 그리스도에게서 퍼져 나가는 희망찬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아니, 빛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어둠 속 은은히 발하는 작은 불빛의 힘은 위대합니다. 조지 드 라 투르의 그림을 조용히 바라보노라면, 어느새 우리의 지친 영혼이 신비로운 천상계로 고양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밤에서 오직 평화만이 있는 빛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



교구 소식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11/16(토) 19:30~21시, 이주의 시대, 난민은 누구인가? _ 김항수 신부

12/21(토) 19:30~21시, 전쟁의 시대, 평화의 길 _ 강주석 신부

장소 정발산 성당 강당

문의 031-948-8105~6

중1~3 및 고1~2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7(주일) 10시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철원-연천-파주]

날짜 12/14(토), 1/11(토) [당일]

회비 5만원[당일] / 10만원(성인), 7만원(청소년) [1박2일]

1/25(토)~1/26(주일) [1박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2025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 일산분원

신청 2025년 2/19(수)까지 (선착순 100명)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일산분원)

수업 저녁반 (수, 금 19:30~21:40)

과정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 매학기 4과목

등록금 한 학기 40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분야 건설공사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회사

접수 11/22(금)까지

문의 031-850-1427 관리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소식 참조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 오픈 예정

업무 청소년(선주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소속 단체 지원, 각종 행사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공연] 창작 뮤지컬 <김대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시성 40주년과 성인을 후보로 모시는 의정부교구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창작 뮤지컬 <김대건>을 준비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역사의 진실과 희망,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시 11/29(금), 30(토) _ 15시, 19시 [총 4회]

장소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예매 플레이티켓 www.playticket.co.kr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미사 · 피정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2/21(토)~22(주일), 2/14(금)~15(토)
3박 4일: 11/28(목)~12/1(주일), 12/5(목)~8(주일)
8박 9일: 11/14(목)~22(금), 12/26(목)~1/3(금)
40일: 12/14(토)~1/22(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지혜의 샘 피정 프로그램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일시: 11/18(월) / 강사: 장재봉 신부, 한영임 회장
문의: 010-3248-9705 지혜의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희년을 준비하는 기다림과 희망의 대림 피정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5,5).
일시: 12/21(토)~22(주일) [1박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회비: 10만원 / 강사: 남덕희 신부 (영성신학 전공)
문의: 031-941-2766, 6634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11/15(금)~18(월), 12/20(금)~23(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12/6(금)~9(월), 강화도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엄마와 딸, 아들(미혼) 피정: 11/23(토)~24(주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2/20(금)~22(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일시: 매주(금) 21시 ~ (토) 03시
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시 출발)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9:20 출발)
강사: 전국 유명 강사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1/15(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황규현 신부(수원교구 여주성당 주임)
문의: 010-2127-0032

故 차동업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기일 미사

일시: 11/12(화) 14시
장소: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4(목)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회비: 1인 3만원(식대 포함)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 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6(금)~14(토), 1/2(목)~10(금)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교육 · 모집 ▶▶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11/8(금)~11/22(금)
문의: 054-851-3021~2, ipsi.csj.ac.kr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남녀 평신도
접수: 11/30(토)까지
문의: 010-5399-3371, 010-9572-8282

2025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여학생 13명 (미술계열 1학급)
자격: 미술에 열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접수: 11/11(월)~12/9(월)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www.flowerdaymorning.com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5학기)
모집: 오르간, 작곡(CCM 작곡 포함), 합창지휘
접수: 12/2(월)~13(금)
전형일: 1/10(금) 최양업홀(충정로역, 서울역)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접수: 11/11(월)~2/14(금)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
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그레고리오성가·성악·플루트·
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접수: 11/1(금)~22(금)
과정: 3개월 수업 (12월~2월)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접수: 11/25(월)~12/5(목), 전형일: 12/14(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문의: 031-820-7003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제24차 정기 학술 세미나

일시: 11/16(토) 14시~18시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당
주제: 청소년과 생명
문의: 02-460-7623

제2회 한남성서연구소 학술 발표회

“죽음 이후” / 발표자: 정태현 신부 외 5명
일시: 11/29(금) 10시~16:10 (회비 없음)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시 신흥로 261)
문의: 031-846-3467 한남성서연구소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이나
공영주차장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 치위생사

일시: 주일 13시~17시 (월 1회 봉사)
장소: 파주엑소더스 치과진료실
(조리읍 송비말길 79-39)
문의: 031-948-8105 파주 EXODUS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상담: 02-764-4741~3, www.holyfac.or.kr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양주2동 성당 관리장 모집

인원: 1명 (계약직)
업무: 시설관리, 미화, 조경 및 기타
근무: 주 40시간 (주말 근무, 주중 휴일,
오전 4시간/ 휴게/ 저녁 4시간 근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추천서
절차: 1차 서류, 2차 면접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 채용시까지
주소: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58번길 258-5
양주2동 성당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신앙교육원 사무장 모집

자격: 견진성사 받은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추천서,
교적사본,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
접수: 12/2(월)까지 (11/27 우체국 소인까지)
방법: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녹양동 성당 글로리아 성가대 반주자 모집

매주 (수) 19:30~21:30, (주일) 09:30~12시
문의: 010-5235-6312 강성희

가톨릭평화방송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일시: 11/24(주일) 13시
장소: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대상: 첫영성체를 받은(25년 예정) 초2~6 신자
접수: 11/21(목)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안내 · 기타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6(주일)~2/6(목)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60만원)
3/3(월)~14(금) 발칸반도 메주고리에 (465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0(월) 이탈리아 일주 (13일, 희년 전대사)
2/11(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3/10(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화관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일시: 12/1(주일)~3(화), 12/6(금)~8(주일)
연말연시(한라산): 12/29(주일)~1/1(수)
눈꽃산행: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1/24(금)~26(주일)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신부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6(월)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2/12(수)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대한항공)
2/24(월), 3/3(월) 출발 특가: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385만원)
1/17(주일),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1/15(수), 3/9(주일)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3/26(수) 이태리 일주 (9일, 419만원, 대한항공)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025년 희년(희망의 순례자들) 특집 성지순례
1/6(월)~16(목): 새해맞이 이탈리아 (KE항공)
1/13(월)~17(금): 일본 북해도 (KE항공)
1/17(금)~24(금): 멕시코 과달루페 (AM항공)
1/28(화)~31(금): 설특집 일본 나가사키 (OZ항공)
2/3(월)~14(금): 이집트 (EK항공)
2/13(목)~24(월): 남부스페인~포르투갈 (KE항공)
문의: 1551-1053, cpbctour.co.kr [선착순]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날짜: 2025년 4/24(목)~5/5(월)
장소: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살레시오회	매월 넷째(토) 14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16(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1/16(토) 14시~17시	경기도 군포수녀원	010-4889-1830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 (상시 상담가능)		010-9199-4995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소부

평신도 주일

오늘 연중 제32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68년 정기 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승인하고,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부터는 날짜를 연중 제33주일로, 명칭을 ‘평신도 주일’로 바꾸었다가,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함에 따라 연중 제32주일에 ‘평신도 주일’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평신도(平信徒)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품과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며,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봉사직)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평신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라이코스] (λαϊκος)는 3세기 이후 교회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많은 저술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속되다.’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1789~1799)을 기점으로 교회를 거부하는 반성직주의와 세속주의가 널리 퍼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해에 맞서, 신학자 콩가르 추기경(Y. Congar, 1904~1995)은 교회 안의 평신도 역할을 연구하면서 [라이코스]라는 단어가 속되다는 의미를 지니면서도 이교 백성에 반대되는 거룩한 하느님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 (λαός)에서 유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1항). 또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과 목표, 분야와 형태, 준수해야 할 규범과 이를 위한 양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열린 제7차 세계주교시노드에서는 평신도라는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었고, 그 후속 문헌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문헌의 공통점은 평신도의 신원과 사도직 활동을 다루면서 그 역할과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는 평신도는 수동적으로 성직자나 수도자만을 바라보며 그 지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느님 백성 전체와 협력하면서 교회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모든 평신도가 친교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며 세상에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